



싱가폴 Labelexpo Asia 2002 개최

전세계적인 마케팅 효과 기대

Labelexpo Asia 2002가 올해 6월 4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0년에 열렸던 Labelexpo Asia에서는 아시아 기계업체들이 전체 수출의 60%정도를 차지했었다.

이번 Labelexpo Asia 2002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크게 늘어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상품의 안정성 확인을 비롯해 새로운 재료로 시도된 기술 혁신 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증가가 이뤄진 까닭은 Labelmen Machinery, Shiki Corporation, Kopack International와 같이 규모가 큰 자사들이 전시

회에 출품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Labelexpo Asia 2002의 출품업체는 Ahlstrom Paper를 비롯해 Akzo Nobel, Arvonvert, Ermolli Group, Exxon Mobil, Focus Label, Hanita Coatings, Intercoat, Lintec, Manter, Meshtec, Omet, Ritrama, Rotoflex, UPM, Yenom이다.

이번 행사관계자들은 Labelexpo Asia 2002를 통해 한국·중국·일본·말레이시아·태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abelexpo행사는 2년마다 개최돼 왔으며 지난 2000년 11월을 끝으로 올해 다시 열리게 됐다.

문의 Tel : +44(0)2088462700

Email : gpattison@tarsus.co.uk

jwatts@tarsus.co.uk

일본, 연질 아크릴수지 개발

한국 아크릴 수지업계 대일수출 축소 우려

일본의 주요 화학메이커인 KURARAY가 독자적인 폴리마 중합기술을 활용해 연질 아크릴수지를 개발했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URARAY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수지는 기존 아크릴수지의 고투명성 및 고내후성(耐候性)을 유지하면서 ABS수지 및 PC 수지 등과의 접착성에도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소제를 포함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등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의 염화비닐수지를 빠르게 대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내충격성에 뛰어난 아크릴 수지는 상품화되고 있지만 연질타입의 개발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아크릴수지 개발은 7~8년 전부터 착수되어 2000년 가을부터는 국내외로 샘플발주를 개시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미 中條사업소(니이가타 소재)에 연간 2천톤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2005년도에는 관련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아크릴수지 범용품에 대해서는 노무비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성형재료 및 틀 등을 해외에서 발주하는 방침에 따라 일본 내수 시장내에서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도 대일수출이 2000년도에 비해 37%로 감소(30억5백만불)하는데 그친 우리업체는 대일수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범용수지, 설비통폐합 추진

체질강화 위해

일본 범용수지 메이커들이 제조설비의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화학부문에서는 미쓰비시화학 계열 일본폴리켄이 지난 14일, 옷카이치 공장내 설비 1계열의 운전을 올해 말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미쓰이화학도 오사카공장에 대규모 설비를 신설한 대신 기존설비를 폐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또 쇼와덴코 관련회사에서도 연내에 카와사키공장의 폴리에틸렌(PE) 1계열을 중지하는 등 범용수지 관세인하 완료까지 앞으로 2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앞으로 있게 될 수입품과의 경쟁격화에 대비한 각 메이커들의 비교열위 설비재조정 움직임이 일제히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폴리켄이 운전을 정지하는 것은 옷카이치 공장에 남아 있는 연산능력 37천 톤급의 플랜트이다. 이 플랜트의 운전이 정지되면 동사의 PP 생산체제는 카와사키, 미즈시마, 카시마의 3개 공장을 포함한 7계열로 압축되며 전체 생산능력은 67만3천 톤이 된다.

미쓰이화학은 약 1백20억엔을 투입해 자회사인 그랜드폴리머의 오사카공장내에 2003년말 가동을 예정으로 연산 30만 톤급의 PP설비를 신설하는 대신 같은 규모의 기존설비는 폐기하게 된다.

이외에 쇼와덴코와 일본석유화학이 출자하고 있는 일본폴리오레핀도 카와사키공장내 PE제조 1계열을 연말을 기해 정지하게 된다.

일본 국내의 PP생산량은 지난 97년의 2백85

만 원을 피크로 하락하기 시작, 작년 실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2백54만 톤까지 떨어졌다. 플랜트의 평균가동률도 86%에 머물러 각 사마다 적자폭 확대 제지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도 내수가 보합수준에 머물러 국내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범용수지 메이커들은 그러지 않아도 잉여생산설비가 수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는 2004년에는 범용수지의 관세인가 완료됨에 따라 코스트 경쟁력을 갖춘 구미 수입제품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더블펀치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국내 메이커 대부분의 플랜트들은 노후화 해 1계열 당 평균 생산능력은 8.8만 톤에 불과(전체 33계열 중 10만 톤을 상회하는 곳은 10계열 뿐임)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산효과를 무기로 연산 20만~30만 톤급 규모의 플랜트로 진입하게 될 구미 화학메이커에 뒤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다.

물론 이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 각 사가 공히 체질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쓰이 화학과 스미토모 화학이 2003년 10월의 경영통합에 앞서 오는 4월 1일에 범용수지 사업을 통합한 신회사를 발족시키는 이외에, 일본폴리캠도 PE부문에서 일본 폴리올레핀과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재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들 업계에 남겨져 있는 최대의 과제는 여분의 생산설비를 처분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최신 설비를 정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관세라

[표] 일본의 최근 3년간 폴리프로필렌 시장규모 변동추이 단위: 천톤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생 산	2,595	2,627	2,544
국내출하	2,308	2,399	2,416
수 출	375	357	308

는 보호벽이 없어지는 오는 2004년 시점에 대비, 코스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들 업계의 자구노력은 부단히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독일, Adelphi 반자동충전기 인터팩 2002 출품 혁신적인 헤드디자인 갖춰

올해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Inter pack 2002에 Adelphi의 반자동충전기가 출품된다.

Adelphi의 반자동충전기는 압축공기를 넣어 동력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크립 및 액체 상태를 모두 소화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헤드 디자인을 갖고 있다.

이 기계는 의약품, 화장품 및 세면품 마켓 등 위생이 중요시되는 업체에 유익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안에 장치를 변환할 수 있고 디지털 계수기에 의해 필터 조절기와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그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다.

Adelphi의 반자동 충전기는 기름유출시 세부 장치가 작동 정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형태로 포장됐고, 기계의 틀은 스테인리스로, 또 맞닿는

모든 부분은 3백16리터의 스테인리스, PTEF, Viton으로 이뤄졌다.

Adelphi에서 기계는 Interpack 2002의 16홀 16A20에 진열된다.

일본, 금년 사출기생산 4.7% 증가 전망
하반기 회복 예측

일본산업기계공업회가 발표한 '2002년도 플라스틱기계 수요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사출 성형기, 압출 성형기, 블로우 성형기 등 3기종에 대한 생산전망에서 사출 성형기와 프르 성형기는 전년대비 소폭증가로 전망하는 한편, 압출 성형기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IT 버블붕괴 영향으로, 회복은 하반기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업회의 플프라스틱기계부회가 추계한 것으로 일본내 자동차업계등의 견조한 투자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IT 관련업계의 동향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미국과 아시아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회복은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기종별로 보면, 사출 성형기는 2000년 1만7천4백78대로 과거 최대 생산실적을 기록했지만, 2001년은 IT관련을 중심으로한 전기업계의 수요가 크게 떨어져, 전년대비 44.8%에 해당하는 9천6백50대로 1만대를 밑돌았다.

또한 테러영향이 하반기에는 줄어들 전망이지

만, 일본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1만1백대를 목표로 정했다.

압출 성형기는 2001년 수요가 전년대비 3% 증가한 3백40억엔이었으며, 올해도 IT 수요회복전망으로 작년과 비슷한 3백40억엔으로 예측하고 있다.

블로우 성형기는 2001년에 전년대비 1.7% 감소한 1백70억엔이었으며, 2002년에는 2.4% 증가한 1백74억엔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제조업 합병 활발
성장세 없어 어려움 지속될 듯

미국에서 플라스틱 제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합병은 다른 제조업체 분야만큼이나 활발하다.

소비자의 플라스틱 구매는 전체 산업분야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내 2000년 4분기 및 2001년 1분기의 판매 둔화는 바로 각 기업의 생산능력 확장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다. 그러나 산업 전반의 생산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 측에서 더 이상 설비증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산업회(SPI)에 따르면 1999년 기준 플라스틱 산업은 1백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으며 출하량은 3천40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 15년간 플라스틱 산업은 연평균 5.8%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중 레진은

2.5% 성장에 불과했지만 기계분야는 7%의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플라스틱 산업관련 통계는 우려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SPI의 로리 앤더슨은 미국의 현 경제 상황 때문에 플라스틱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성장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장 돈 던컨은 제조업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비해 GDP 성장이 거의 없어 제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분야도 성장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평시의 공장 가동률은 84~85%이나 최근에는 72~73% 정도로 내려갔다고 던컨은 덧붙였다.

플라스틱 수요가 많은 분야 중 자동차와 전자기자재 쪽은 OEM으로 인한 가격하락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의료분야 및 포장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플라스틱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제조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 강화 방침
확대생산자책임 원칙 도입 예정**

일본 환경성은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해 제조업자에게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회수를 의무화시키는 '확대생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의 폐기물 회수의무는 페트병, 백색 가전제품(TV 등) 등 일부 품목에 한해 개별 리사이클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일된 원칙이 없이 집행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불법 투기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환경성은 폐기물처리법에 ERP를 포함시킴으로써 개별 법률의 개정을 유도하고 폐기물 회수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도에 제정된 '순환형 사회기본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해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회수와 리사이클을 실시한다' 라는 내용의 ERP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처벌규정이 없이 이념을 정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규제조치는 개별법이 맡겨진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페트병 등을 대상으로 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서는 제조자의 책임을 정해 놓았지만, 수집 운반 보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 비용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페트병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성은 ERP 원칙을 폐기물처리법에 포함시킨 후 PC, 휴대전화 등 처리가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제품명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회수방법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해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칙만을 규정하고 업계의 자주노력을 지켜본 후에 회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제품명, 회수방법 등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